바이올린으로 들려주는 '전북 판타지'

바이올리니스트 이수아 독주회 '환상' 31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서 개최

바이올리니스트 이수아의 독주회 '환상'이 오는 31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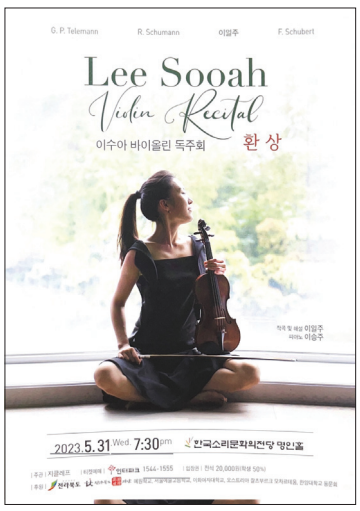
이번 공연은 지클레프가 주관하고, 전북도와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한양대학교 동문회가 후원했다.

이번 공연의 작곡 및 해설은 작곡가 이일주가 담당하며, 피아니스트 이승주가 피아노 연주를 담당한다.

이번 공연에서 이수아는 G.P.텔레만, R.슈만, 이일주, F.슈베르트의 곡을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특히, 그는 2022년에 발표된 이일주의 곡인 '전북 판타지'를 연주한다.

이수아는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를 거쳐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 음악대학교에서 연주, 논문, 논문발표에서 최고점수로 석사과정을 졸업, 최고연주자 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올해 한양대학교에서 음악 연주



바이올리니스트 이수아 독주회 '환상' 포스터

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인터내셔널 컴페티션, 올레그 다노브스키 콩쿨에 입상했고, 서경 방송국, 서울시청소년 오케스트라와 부암아트홀의 영 아티스트 콘서트, 이화여자대학교의 춘계 음악회에서 음악적 재능을 선보였다. 또한, 예후디 메뉴힌 재단의 '라이브 뮤직 나우'에 선발됐고, 유럽의 대표적인 현대 음악단체인 오스트리아 현대음악 앙상블과 포랄베르그 오케스트라의 단원을 역임했으며, 서독일 방송교향악단을 지휘했던 군터 노이홀드에게 발탁돼 유럽 무대에 데뷔했다.

그는 세종문화회관, 전주 소리문화의전당, 한벽문화관 등에서 수차례 독주회를 여는 등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 서울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 라수아레 앙상블 리더이며, 2018년부터 행정연수원 등에서 클래식 인문학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향후, 10월 15일 서울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독주회를 열 예정이다.

티켓예매는 인터파크(1544-1555)에서 하면 되며, 입장권은 전석 2만원(학생은 50% 할인)이다. /김재훈 기자

'문화가 있는 날' 청년 예술인 공연 펼쳐진다

'전북 청년예술인과 함께하는 'Shine Youth' 오늘 진행

전북도가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아 '전북 청년예술인과 함께하는 'Shine Youth'(빛나는 청춘)'라는 주제로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16일 오후 7시 연다.

이날 공연에는 야외공연장 시설운영 활성화와 문화예술 향유기능을 수행하는 도청사를 만들기 위해 도청 야외공연장에서 청년 예술인 3팀의 활력있는 문화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재능과 열정이 넘치는 빛나는 청년예술가들이 지역민과 소통하며 전문성을 가진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연하는 참여하는 출연팀은 노야밴드, L.D.A(힙합 댄스팀), 고니밴드로 지역을 대표해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예술인들이다.

천선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를 통해 예술가들에게는 활동무대 확대를, 도민들에게는 편한 복장으로 15분 내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슬세권을 제공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도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를 위해 올해 3억 8천 6백만원을 투입해 도내 83개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에서 음악공연, 영화상영, 인문학강의, 전시해설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사회적 관계 위축에서 벗어나 따뜻한 위로가 절실한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생활 확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무주서 만나는 5월 다양한 문화예술 전시

30일까지 안성면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칠연미술관 '맑은 고독'
21일까지 무주읍 최북미술관 '순수한 움직임' 전시회 개최

무주의 5월이 다양한 볼거리로 풍성해지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안성면 소재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칠연미술관에서 소속작가 작품전 '맑은 고독'이 열리며 21일까지는 최북미술관 기획전 '순수한 움직임'이 개최된다.

'맑은 고독'은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소속 작가 5명의 작품과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최원 관장(회화), 이호영(서예), 이윤승(사진), 선환두(한국화), 양규준(서양화) 작가가 참여해 총 20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최원 관장은 "이번 전시회는 올 들어 두 번째 진행하는 그룹전으로 무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과 군민 간의 교감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그림과 글씨,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코로나19로 드리워졌던 어둠을 거둬내고 봄에 어울리는 희망을 안겨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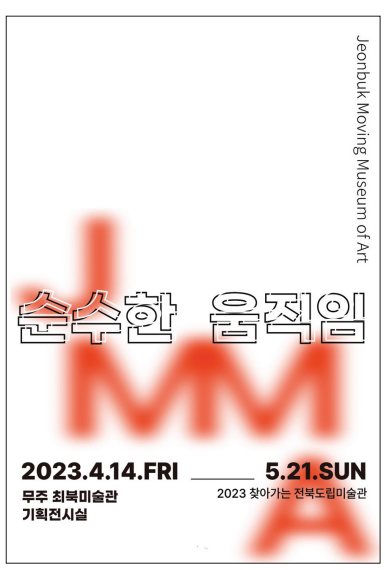
한편,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는 무주군이 문화예술인에게 예술창작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2001년 폐교된 공정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활용하고 있는 공간으로, 현재 8명의 작가가 각자의 작업실을 두고 작품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해마다 이곳에서는 이들 작가의 개인전을 비롯한 기획전과 공동전시회 등이 개최된다.

한편, 무주읍 한풍루로에 위치해 있는 최북미술관에서는 21일까지 '순수한 움직임'이 개최된다.

2023 찾아가는 전북도립미술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실험예술의 거장 이건용 작가를 비롯해 김영주, 문복철, 하수경, 하반영, 하상용, 추광신 작가가 참여해 17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는 전북을 대표하는 추상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순수 조형요소만으로 표현이 되는 추상화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다.

무주군청 문화예술과 박선옥 과장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다양한 문화예술 볼거리를 준비했다"며 "이번 전시회들이 주민 여러분은 삶의 여유를, 관광객 여러분은 뜻밖의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최북미술관 '순수한 움직임' 전시회 웹포스터

군산시립예술단과 함께하는 '예술아 놀자! 광장 콘서트'

군산시립예술단이 예술아 놀자! 광장콘서트 '불후의 명곡 VS 팬텀싱어' 하이라이트 배틀 콘서트를 주제로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오는 20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야외공연장에서 다양한 장르의 명곡을 재해석해 부르는 두 개의 음악 경합 '불후의 명곡팀'과 '팬텀싱어팀'으로 사회자(군산시립합창단 박건우)의 진행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경합 곡으로는 '불후의 명곡 팀'에서 가수 조관우의 '꽃밭에서',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등을 부르게 되며 '팬텀싱어 팀'은 남성중창 'Il Mondo'를 시작으로 남성독창 'Nessun Dorma'를 부르며 뜨거운 경합을 벌이게 된다. 또한 군산시립교향악단의 '낭만에 대하여/최백호', '아모르 파티/김연자' 두 곡을 피아노 트리오로 연주를 더해 관객들에게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연은 군산예술의 전당 소공연장 옆 야외 무대에서 진행되며, 군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다. /군산=이재춘 기자

최초전시지원 프로젝트… 김경란 작가 '팝아트로 바우바우'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 이하 재단)은 15일부터 26일까지 김경란 작가의 첫 개인전 '팝아트로 바우바우'를 전북예술회관 3층 산마루 전시실에서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도내 최근 5년 이내 개인전 이력이 없는 경력단절 시각분야 전문예술인을 대상으로 개인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최초전시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각분야 전문예술인에게 창작활동 동기 부여 및 예술활동증명 등록 연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했다.

김경란 작가는 매일매일 바쁘게 지낸 현실속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예술가로서의 꿈을 버리지 않고, 늦게나마 그 꿈을 꺼내어 행동에 옮겨 보았다고 한다. 작가는 강아지를 좋아하나, 막상보니 무서워 그림으로 마음껏 친함을 표현했고, 그림을 보는 모두가 행복하고, 서로의 친함을 표현하는 나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품을 만들게 됐다고 한다.

전시에 대한 문의는 전북예술인복지센터(063-230-7447)에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